퇴근 후 술 한 잔도 '주머니' 걱정

광주 술집·음식점 소주·맥주값 인상… 서민 부담 가중

1500원짜리 소주 5000원에 팔아 3500원 마진 챙겨

광주지역 술집과 음식점들이 소주와 맥주가격을 잇달아 인상하고 나섰다. 일부 음식점들이 직장인과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류의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상권의 업소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삼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 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찾아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일본식 선술집은 소주와 맥주를 각각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인근 또 다른 선술집과 남구 노대동 아파트 앞 술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음식점들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식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안주나 음식값을 인상하면서 메뉴판을 새롭게 제작, 소주와 맥주가격까지 인상했다.

11일 광주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상무지구의 상당수 술집과 음식점들은 기존 4000원에 팔던 소주를 5000원으로 올리는 추세다. 인상폭이 무려 25%에 달한다. 그외 다른 지역 업소들도 기존 3000~3500원에 팔던 소주와 맥주가격을 4000원에 맞춰 인상하는 등 술값 올리기에 편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주류회사에서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이유 하나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점 사장 A씨는 "최저임금과 식재료 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술값을 올리게 됐다"며 "아르바이트생들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재 주요 주류회사의 소주와 맥주 출고가는 1100원 선이다. 이후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개별 음식점에는 1500원 정도에 납품되는 게 일반적이다. 1500원짜리 소주 한 병을 5000원에 팔아 3500원의 마진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음식값과 달리 전혀 인상요인이 없는 소주와 맥주가격을 올리면서 "소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B(31)씨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 격차의 폭을 줄이자는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물가인상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다"며 "이젠 더 이상 소주를 '서민 술'이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류가격 외에도 김밥과 짜장면, 라면 등 외식물가는 지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는 상승 폭이 2.8%로 더 커졌다. 지난달에도 2.8%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1월과 2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후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선글라스 20~50% 할인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 2층 DK선글라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최근 유행하는 선글라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DK선글라스 매장에서는 브랜드별 20~50%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유스퀘어 안내로봇 '애디' 인기

주요 시설·행사 등 안내 서비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안내로봇 애디(ADDY)가 인기다.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애디를 일부러 찾아가 사진 촬영을 하려는 이용객까지 생겨날 정도다.

11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에 따르면 안내로봇 애디가 지난 5일부터 터미널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용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디는 하단 4면의 LCD 디스플레이와 상부의 음성인식 및 터치기능을 갖추고 유·스퀘어를 돌아다니며 주요 시설 및 매장 안내, 문화관 행사, 프리미엄 버스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찾고자 하는 유·스퀘어 내 매장 위치와 경로를 알려줄 뿐 아니라 직접 매장까지 안내하는 기능에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촬영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이용객 앞에서는 멈추는 등 가감속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한다. 오는 16일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14일 총파업

릴레이 상경투쟁 등 해외 매각 철회 위한 파업 수위 높여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 릴레이 상경투쟁 등으로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1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서 광주·곡성공장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을 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정부를 상대로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조원 릴레이 상경 투쟁, 해외매각 철회를 위한 10만 광주시민대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노조는 앞서 채권단에 오는 13일 낮 12시까지 해외 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채권단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투쟁 방향과 수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지회 조삼수 지회장은 "대화를 거부하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강행한다면 중차대한 결정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세무서, 광양상의와 '세정 소통' 순천세무서(서장 임진정)는 8일 오전 광양상공회의소를 찾아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세정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삼성전자 'iF 디자인 어워드' 55개 상 휩쓸어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삼성전자가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55개에 달하는 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디자인 어워드 제품 부문에서 금상 4개를 포함해 40개를 받았고 콘셉트 부문 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 8개, 패키지·서비스디자인 부문 각 1개씩 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 기록은 역대 'iF 디자인 어워드' 최다 수상 기록으로,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주방가전도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품 부문의 경우 냉장고 안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능 등을 갖춘 프리미엄 빌트인 냉장고(모델명 BRR 9000M)를 비롯, 육각형의 독특한 외관이 특징인 게이밍 PC인 '데스크탑 오디세이', 급속 무선충전기 컨버터블과 배터리팩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갤럭시 S8과 S8+, 갤럭시 노트8, QLED TV 'Q9', 프리미엄 주방가전 '셰프 컬렉션 포슬린' 등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

이외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펜을 통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노트8 S펜 UX',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로 식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주방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2018년형 패밀리허브 UX' 등의 디자인이 수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생활 속 경험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대 경제활동 인구 60대 이상에 추월 당했다

로또복권 (제79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22	31	32	39	45	3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97,028,125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94,001,103	34
3	5개 숫자일치	1,710,941	1,868
4	4개 숫자일치	50,000	97,900
5	3개 숫자일치	5,000	1,641,334

통계청 조사

20대 406만·60대 이상 421만명

지난해 취업했거나 구직 중인 20대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 인구)가 60세 이상 노인에 사상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노인과 20대 인구 모두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용 한파로 잠시 구직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는 406만3천 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60세 이상 경활 인구는 전년(395만3000 명)보다 25만7000 명 늘어난 421만 명을 기록, 20대 경활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활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것이다.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가 60세 이상 경활 인구에 추월당한 데에는 최근 가속화한 고령화 영향이 크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은 전년보다 49만5천 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와 경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0만 명, 4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 경활 인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멈춰 서면서 노인 경활 인구의 청년 경활 인구 추월 시기가 더 빨라진 것이다.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청년들의 모습은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감 추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636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 명 늘었다. 20대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비경제활동 인구만 대폭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전혀 늘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비경활 유형인 취업준비생은 전년보다 4100명 늘어난 66만9000 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연합뉴스